

朝鮮時代의丹青

張 起 仁

(三成建築)

本稿는 지난달 20일 한국문화재보호협회가丹青의 제 모습을 찾기위해 연「한국단청연구」세미나에서張起仁(삼성건축설계사무소대표)씨가 발표한 조선시대의 단청 내용을 옮긴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단청의 문양과 影畫 방법등이 전통을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과 전통기법이 사라져 가고 있어 이를 되찾아 체계화내지 계승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처음 마련된 것이어서 큰 의의가 있다.

1. 개 황

이조시대는 각종문물이 혁신적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건축술이나 단청술은 그 초창기에는 고려대의 것을 거의 답습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러나 점차 정치 사회의 발전에 따라, 또 사회제도문물의 개편에 따라 서서히 변천발전되어 중기이후로는 독자적인 발전이 시도되었고 또 후기에 미치는 제 요소가 내포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종교, 경제, 사회제도의 많은 개변은 건축문화에도 다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따라서 건축의 단청 기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끼쳐졌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권위적 건축인 궁실·공공건물 사원건물의 조영에 따른 건축술의 발전 못지 않게 단청술에도 그 사용재료나 처리방법등에 점차적인 진보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우수한 건축인과 단청인의 창안과 계승이 끊임 없이 되었을 것이 엿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이웃 중국의 교류 영향이 컸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자주적 정신도 확립되면서 보다 한국적인 것으로 발전되었을 것이 확실하다.

2. 단청술의 계승

단청술은 이조초기에는 그 답습을 벗어 나서 다른 신기법이 도입될 수도 없어 대체로 전대에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시대가 흐르면서 모든 문물이 서서히 개발되며 또 외형도 진보되어 갔으며 1500년대말 임진란을 계기로 사회혼란과 암흑기를 맞아 침체 되었다가 이조중기에는 많은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

1800년대 이후의 이조후기에는 이조시대의 성숙기를 거쳐 1900년대에는 외세에 물리는 궁핍한 경지에서 몰락되는 경향이지만 오로지 종교적 사원건축, 충효교육의 발전으로 유교적 서원·향교의 건축도 부단하게 계속되었다.

단청의 시대적 구분도 이상과 같이 건축양식의 시대구분에 따르면 될 것이나 건축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는 것이 단청이기에 앞서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단청의 기본

단청의 기본을 살펴보면 1. 대상건물의 규모내용, 2. 단청도로의 안료·색채·색감, 3. 단청문양의 구성·장식성, 4. 단청기법상 화원의 양성·숙련도·창의성 등으로 대별하여 진다.

(1) 대상건물은 ① 궁실·국방·국가공공시설, ② 불교사원, ③ 유교건축(문묘, 서원, 향교, 사당등) ④ 사회공공적건물·사가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유구를볼수 없는 산업시설, 사회시설로서의 건축물등은 단청의 시도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며,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2) 단청도로는 고래로 안정되고 좋은 빛이 나는것은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다 썼음이 분명하다. 당채(唐彩)란 말이 있듯이 얻기 힘든 좋은 안료는 중국제품이었을 것이나, 조선조 후기 또는 근래에 이르러서는 질과 양의 면에서 서구에서 수입된 것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 양홍·양청·양녹 등의 어휘는 빛의 농담을 헤아리는 초빛·삼빛에 대한 이빛(二色)이 아니라 서양에서 왔다는 뜻으로 양홍(洋紅)·양청(洋靑) 등으로 해석된다. 이들 중에 자연산암채(岩彩)가 아닌 공업적 화학(化學)제품으로서 색상이 선명하고 비교적 안정색인 우수한 것도 있어 재래에 없던 색도 있다. 고급안료는 모두 희귀한 암채라고 하지만 화학적으로도 희귀한 안료가 있고 현재는 생산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 희귀물감은 다음과 같다. 1.로즈드레(황금비), 2.에머럴드그린(비취색), 3.매더카마인(洋紅色), 4.차이니스버밀 리언(朱紅色) 등은 생산이 거의 중단되고 있으며, 5.테르베스(綠褐色), 6.오래울린(白光色), 7.갸버지(雌黃) 등은 생산이 극도로 제한된 것이다. 갸버지는 월남·태국등지의 장글나무에서 뽑아내는 것이

며 매더도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식물에서 뽑는 것이다. 이것을 원료로 하는 물감이 로즈드레, 디프로즈매더매더 카마인, 또 주홍색인 퍼어플매더 등이다. 에머월드 그린은 구리와 비술를 배합하여 만드는 것이며, 그 독성이 너무 강하여 제조생산이 금지된 상태이어서 대용 화학제품으로 하게되었다.

단청안료와 현대안료를 비교하면 상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일반적으로 색상이 짙으며 또한 안정색조이나 우리가 느낄때는 약간 둔하고 어두운 것이다. 상대의 비단 옷감이 어둡고 두터운 색감이 들고 현대비단이 밝고 알파한 기분이 드는 것과 같다.

(3) 단청문양을 그 주요부분으로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머리초·반바탕머리초, ② 휘·뱃바닥, ③ 먹계화·먹당기·먹긋기·귀긋기, ④ 실·바탕색, ⑤ 질림·비녀장, ⑥ 금물, ⑦ 풍혈·별화·포벽, ⑧ 첨가장식(添加裝飾)

(가) 머리초

머리초의 중심화(中心花 - 主花라고 할 것이나 朱花와 혼동되어 이것을 씀)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로 쓰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연화, ② 녹화, ③ 주화(朱花) 등이고 후세에 이를 수록 이들의 변형으로 모란·국화등 다양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의 성격·시대적 배경 조류·상징적 의의등에 따라 즐겨 쓸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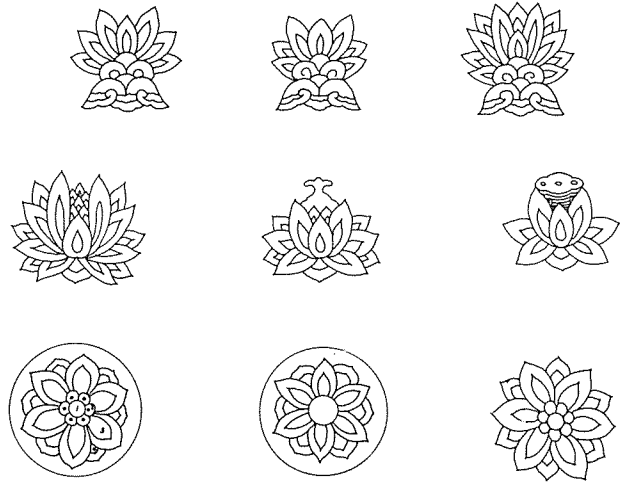
① 연화는 입면적·입체적 표현과 평면적 표현으로 하고, 또 파련화(波蓮花)등으로 표현된다. 특히 연화는 불가의 이상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불교사원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머리초의 하나이다. 그러나 연화는 불교적 꽃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동양에서는 인간의 고귀함을 상징하는 꽃으로도 인식되기 때문에 어디에나 쓰이고 있으며 또 정신적으로 애정과 이상을 상징하는 이상화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화는 불사원뿐만 아니라 궁궐이나 공공건물 또는 민가의 영역에 까지 쓰인다.

연화의 입면적·입체적 표현이 머리초에는 많이 쓰이지만 평면적인 표현도 건물의 각부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연화는 후세에는 주로 옥색·장단·주홍의 3빛으로 하지만 상대로 올라가면 옥색·장단 연화와 아울러 녹화·청화등도 보인다. 단적으로 말하여 밝고 화사한 색감이 초기보다 중기이후에 많이 쓰이게 되었고 또 고려기에는 중국의 영향이 보다 큰 점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그 영향도 있었으리라고 본다.

연화는 평면형으로서는 6판화(六瓣花)나 응연(凝蓮)등이 쓰이나 때로는 4판화(四瓣花)로 표현되기도 한다. 다만 4판화는 보통의 연화꽃잎 표현이 아니고 판련화의 형식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화(朱花)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6판연화의 화판 사이사이에 다시 6판의 꽃잎끝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배주기라 한다. 대개 6판연꽃잎이 옥색·장단·주홍으로 도채되면 배주기는 청화·녹화 등으로 도채하고 있다.



- 1. 황방울
- 2. 주화 六花
- 3. 화변
- 4. 배주기

② 녹화는 곱쟁이(단청에서 곱쟁이라고도 한다)를 좌우에 놓고 딱지로 연결된 것이며 주로 녹색을 칠하므로 녹화(綠花)라 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옥색·장단·청색·석간주로 도채한 예도 있다. 이렇듯 녹화는 초록꽃이란 뜻이지만 광의로는 곱쟁이로 된 고사리 모양의 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상적인 곱쟁이는 기하학적 도법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 표현방법에 여러가지가 있고 또 채색도 녹색 갖둘레에 하엽색을 넣고 또한 먹계화를 내부에 까지 두르므로 2빛 또는 3빛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녹화는 은녹화·반녹화가 있고 이중으로 거듭 그린 겹녹화가 있다. 또 녹화의 색채를 갖둘레에 황실·청실·녹실을 두르고 그 안쪽에 초빛과 2빛의 녹색·청색의 곱쟁이로 도채하기도 한다. 이때 겹색으로 되는 색사이의 먹계화를 넣을때 (황색둘레)와 넣지 아니할때 또는 백실을 넣을때 (녹색둘레에 청색녹화)가 있다. 이와 같이 두색을 쓴 녹화를 겹색녹화라 한다.

곱쟁이 즉 녹화의 형상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보통 나선형으로 그린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 우묵하게 오금을 넣은 오금곱쟁이 즉 오금녹화, 모양이 변형된 형태의 변형녹화등이 있다. 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쇠코형에 가까운 것도 있다.

녹화 곱쟁이에는 번엽이 감겨질 때가 있다. 특히 이것은 머리초에서 중심화의 갖둘레에 두르는 수법에 주로 쓰이지만 단순한 녹화장식에도 쓰인다.

번엽이 감기는 수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 한방향으로 감기지만 옛것은 교대로 반대방향으로 감긴 것도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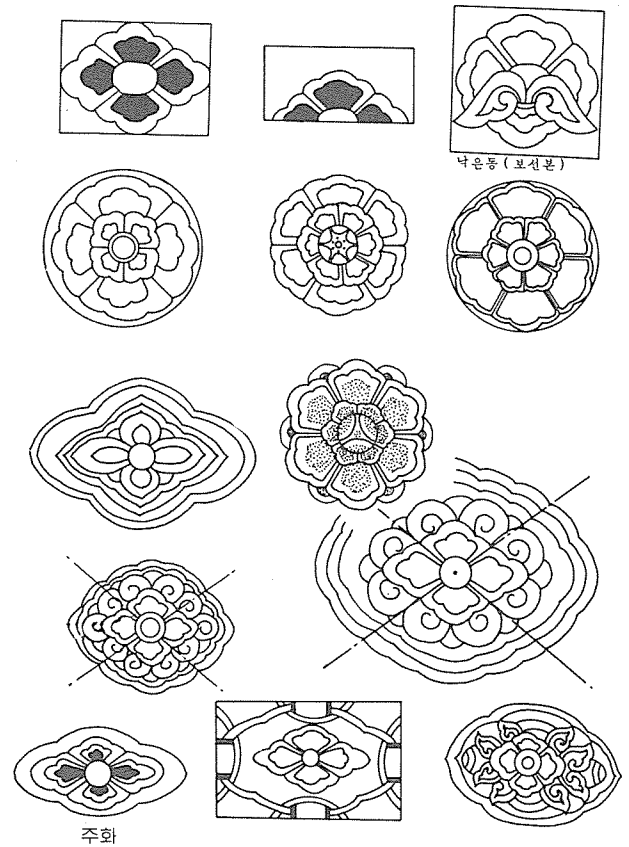
다. 번엽의 모양은 1오금 또는 2오금으로 하며 2빛 또는 3빛으로 도채한다. 또 여기에 수를 백선 또는 색선을, 2줄 또는 3줄을 넣어 장식 할 때도 있다.

녹화의 형태는 전기로 올라 갈수록 변형적인 자유분방하고, 또한 조형미와 균형미를 지닌 곡선형을 구사하여 작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때로는 전체 외곽이 타원형을 이루면서 오금을 넣은 곡선으로 돌리고 있다 이와 같이 상대로 올라 갈수록 세련되고 자유로우며 아름다운 곡선으로 녹화를 표출하고 있으며 색채도 녹색과 청색을 많이 쓴 듯하다.

녹화는 머리초의 중심화가 될 뿐만 아니라 그둘레에 배치하여 장식하는 문양으로도 이용되고 또 간단히 도채면의 장식에도 이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단일구획문양 즉 뿌리초(마구리면의 문양), 착고, 개판초에도 이용된다.

딱지는 머리초의 중심화의 갓둘레에 그린 둘레녹화의 사이사이에 걸쇠로 넣은 것인데 넣지 아니할 때도 있다. 또 딱지 대신에 향아리를 놓거나 파련화를 넣을 때도 있고 향아리에는 꼭지점을 찍을 때도 있다.

머리초의 중심화는 둘레녹화를 쇠코형의 녹화로 두른 예도 있고 딱지 향아리의외에 파련 또는 화편을 넣은 예도 있다.



③ 주화(朱花)는 4판화(四瓣花)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파련화처럼 그린것도 있다. 아마도 이러한 것은 파련화로 다루어 6판화로 하는 것이 정상이라 하겠다.

주화는 짧은 머리초에 많이 쓰이며 때로는 반주화를 쓰기도 한다.

이것은 또 연화머리초의 향아리의 옆에 둘러대기도 하는 것이다. 초기 또는 고려대의 머리초에서는 이 주화둘레를 옥색 또는 장단으로 도채하고, 여타는 대개 녹색이나 청색으로 도채되는 경우도 있었다. 연화가 불가의 숭앙하는 꽃으로 상징되는 것과 달리 주화는 모양이 단순하고 색채가 아름다운 관계로 궁실이나 민간 공공건물에 많이 쓰이였다.

(나) 휘·뱃바닥

휘는 머리초의 양쪽에 도채되는 색대(色帶)로서 그것이 지니는 의의도 있지만 단청의 색감이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것은 ① 직휘, ② 눌휘, ③ 빗휘(바자휘·인휘)로 대별된다.

① 직휘(直揮)는 머리초의 시작부에 직선적으로 표현된 색대로서 이것을 대별하면 먹직휘·색직휘·금직휘 등이 있다.

먹직휘는 먹으로 비교적 넓게 넣은 색대로서 그안에 매화점 또는 가는 당초문을 간단히 넣기도 한다.

색직휘는 초빛과 2빛 또는 3빛의 색대를 직선적으로 넣고 중간에 분선을 넣는다. 분선을 넣는 일을 켜기라 한다. 여기에 별화를 넣을때도 있다.

초기에서는 분선켜기에 대신하여 먹선으로 켜고 그 바로 좌우 옆에 분선을 넣기도 하였다.

색직휘는 중기이후에 많이 쓰이게 되고 아울러 색상도 후기에 이룰수록 옥색·장단·주홍이 혼히 쓰이게 되었으며 초기 이전에는 녹색·청색도 쓰인듯 하다.

금직휘는 색대는 좁게하고 중간에 쇠코결련 또는 금문을 넣은 것이다. 이것은 사원건축의 화려한 금단청에서 볼수 있는 것이다.

② 뱃바닥, 부재의 밑면에 색대를 도채한 것이며 보통은 부재길이 방향으로 길게 도채하지만 때로는 가로색대를 도채할 때도 있다.

③ 눌휘(橫揮)는 널휘라고도 한다. 이것은 머리초또는 간단한 인휘·바자휘 끝에 다시 눌러 대는 휘이다. 대개 2빛 까지를 쓰고 있다. 눌휘는 짧고 작은 부재인 부연·연목 등에 알맞고 그리기도 편하여 잘 쓰인다.

눌휘는 장대재의 재축에 가로 방향으로 넣되 오금이 든 곡선으로 된다.

④ 인휘는 머리초의 끝에서 ㅅ자로 뻗어지고 중앙에는 무지개처럼된 곡선으로 교차되는 색대이다. 그 나비는 일정하지는 아니하나 대개 4~6cm 정도로 하고 초빛·2빛 또는 3빛까지, 휘의수는 1~7휘 정도 까지 한 예는 있으나 보통 3~5휘 정도가 가장 많다.

휘의 색은 각색을 다 쓰고 있으나 상대에서는 녹색·청색 등을 쓴 예가 많고 적색·황색계는 비교적 적게 쓴 것 같다. 후기에 이르러서는 옥색·주홍·석간주·다자 등

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

⑤ 바자휘(把子揮)는 인휘와 같이 되지만 그 안쪽 끝부분이 연장되어 다른휘에 엮어져 짜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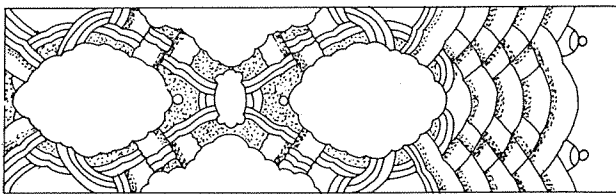
인휘나 바자휘는 곡선의 중간에 오금이 들어 간다.

바자휘는 주로 금단청에 잘 쓰이고 모로단청에서는 인휘가 많이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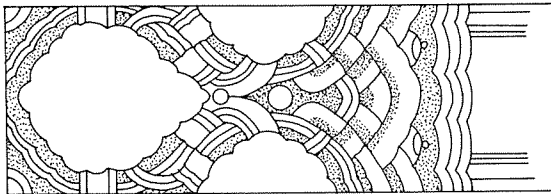
인휘나 바자휘는 머리초의 둘레녹화에서 시작하여 녹실과 황실을 누르고 뺀어 나갈 때도 있으며, 황실 밑으로 엮어서 나갈 때도 있다. 또 때로는 황실다음부터 시작할 때도 있다.

인휘나 바자휘의 교차부 골짜기에는 향아리를 놓으며 다음은 바탕색(하엽·석간주 등) 다음에 녹실과 황실로 두르고 먹당기를 그려서 머리초의 휘를 끝 맺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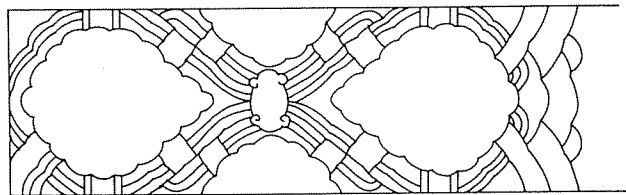
골짜기에 넣는 향아리 대신에 쇠코 주화, 연화 주홍녹화 등을 쓸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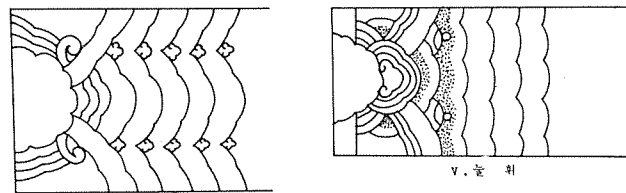
1 바자휘 2 휘 바탕색



11 바자휘



111 인 휘



1111 인 휘

11111 휘

(다) 먹계화·먹당기·먹긋기·시막·시분

먹계화(墨界畵)는 먹기화(墨起畵)라고도 하며 색대 사이에 치는 먹선이다. 먹기화는 색대의 갓둘레를 정리하고 강조 또는 끝맺음으로 효과가 크다. 이것은 초기 이전에는 운필도 좋고 선도 가늘게 되었으나 후세에 이르면서 운필은 강직하게 되고 굵게하여 끝 맺음이 간편하게 처리된다. 비교적 금단청에서는 가늘게, 모로단청에서는 굵게 쓰는 편이다.

화려하고 밝은 색대의 갓둘레에 먹기화로 하면 어둡고 무거운 감이 드니까 분선을 두른다. 분선은 연화·주화 등에 주로 쓰이지만 청·녹등에도 쓰인다.

먹당기는 단청문양의 갓둘레 또는 시작부에 굵은 먹선을 넣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로 갈수록 웅건하게 굵은 편이 아닌가 생각한다.

먹긋기는 먹당기를 가칠면에 길게 또는 가로 넣어 장식되는 것이라 해석된다. 먹긋기에도 옆에 분선을 넣는데, 먹선과 분선의 나비는 2 : 1 ~ 2 : 1.5 정도로 분선의 나비를 가늘게 한다.

벽긋기등도 먹긋기로 할 때와 색벽첩을 넣고 먹긋기 또는 색긋기로 한다. 보통은 바탕색에 먹긋기로 한다.

(라) 실·바탕색

바탕색은 문양을 넣는 밑바름으로 한 가칠 도채면을 말할 때도 있으나 머리초·휘 등의 주위의 여백, 즉 다음도 채면과 사이의 도채색을 말한다. 머리초나 휘끝의 바탕색은 보통 하엽(荷葉)으로 하고 다음 녹실과 황실로 감는다 그러나 옥색·석간주 또는 청색 바탕으로 한 예도 있다. 대개 밝은색인 옥색·청색은 좁은 바탕에 이용된다.

실의 배치는 바탕색 다음에 녹실을 놓고 인접하여 황실을 놓는데 이때 황실 좌우에는 먹계화를 두지만 바탕색과 녹실 사이에는 두지 아니한다. 보기에는 녹색실이 초빛이고 하엽이 2 빛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황·녹실이 머리초·반바탕머리초 또는 번엽문양 주위에서 실이 3교차 되는 부분을 삼보살이라고 한다. 삼보살은 서로 거위져서 질러지기도 한다. 초기 또는 고려대의 실은 녹색·청색도 쓰고 그 모양도 쇠코곡선으로 이어나간 것도 있으며 오금을 두되 한쪽에 둘때와 어긋나게 둘 때도 있다.

(마) 질림·비녀장

질림은 온질림과 반질림이 있고, 직선적으로 한것과 곡선적으로 된 것이 있으며, 가로 질릴 때와 빗질릴때가 있다. 질림에는 또 오금을 넣는 것이 보통이다.

질림은 머리초 주변에서 바탕색과 녹실을 누르고 황실에 질러지기도 하며 황실까지 누르고 다른 바탕색에 감겨들기도 한다. 빗질림은 휘의 연장으로도 보이며 감겨들 휘로도 간주된다.

비녀장은 장구머리초등에서 황실과 녹실이 접근하는데 두어서 앞뒤의 머리초를 달겨매는 구실을 한다. 중기 이후에는 비녀장형식이 확립되어 지나, 상대에서는 상당히 변화있는 문양을 넣어 절어매거나 연결하고 있다. 비녀장 대신에 고리·쇠코 등으로 할 때도 있고 변형녹화등으로 가리는 경우도 있다.

(바) 금문

금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기하학적 문양과 자유곡선 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하학적문양은 원형·정삼각형·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지는 도양(圖樣)으로서 이것들은 혼용하여 다양한 형태와 다채로운 색상으로 도채되어 이를 다 예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자유곡선을 이용한 도안으로서는 짜리당초(가는당초문) 또는 운문등이 쓰이고 있다. 대체로 단청에서는 기하문양이 주가 되며 당초문 등은 순각판·천장·개판 등 중요하지 아니한 부재에 당초 일 따름이다.

금문을 넣은 단청은 사찰등에서 가장 많고 궁실이나 여타건물에서는 삼가는 편이 아닌가 한다.

(사) 풍혈·별화·포벽

풍혈은 넓은 뱃바닥의 일부에 넣는 단독 또는 연속 문양으로 추녀·사래·대량등에 쓰이며 별화는 휘의 안쪽등에 넣은 문양이다. 특히 별화의 도안은 용트림·불상·선선도를 비롯하여 산수화·화조궐지등의 그림으로 도채되고 있다.

포벽은 사찰에서 불벽이라고도 하며 불벽에는 불상을 위시하여 화조 기타 불가에서 숭앙되는 사물을 표현한다.

(아) 첨가장식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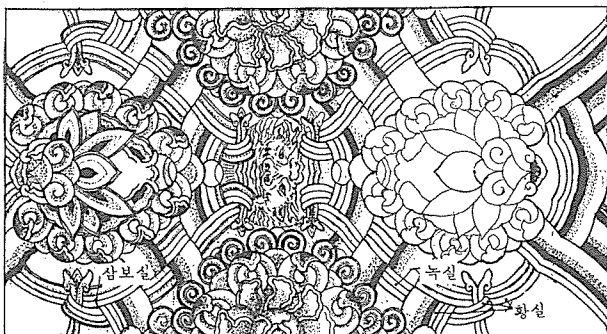
머리초·휘 등의 일부에는 녹화·파련화 등을 배치하여 장식한다. 이와 같은 예는 사찰건축 특히 조선조 중기이전의 단청에서 잘 나타난다.

이상 단청의 부문문양에 따른 도안과 도채를 개괄하여 예거하였으나 보다 세론이 정리되어야 하겠으며, 색채 또한 계열을 찾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4. 건물별 단청

단청을 연구분류하는데는 시대별, 기법별 또는 건물대상별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건물대상은 시대별로 추정될 수 있어 단청의 시대도 그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나 후세에 개채된 단청도 있을 것이므로 깊이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별로 단청을 살필때는 ① 궁궐과 국가공공건물, ② 불교사찰건물, ③ 유교·서원·제각 및 ④ 일반공공건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녹·조빛 — 2 빛맞하열 — 먹선 — 분선

(가) 궁궐·공공건물의 단청

궁궐은 불교사찰과 다른 인간의 존엄성과 애호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불가에서 즐겨쓰는 것은 될수 있는 대로 피하며 국태민안을 위주로 하는 문양과 색채로서 궁궐의 권위와 평화가 상징되며 국민의 감성을 높이는 뜻에서 밝고 건전하고 호화스러우면서도 웅장한 기품이 드는 것으로 표출된다. 공공관서나 지방청사 또한 궁궐에 따랐던 건물의 격식에 따라 단청의 격식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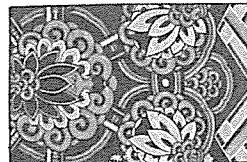
궁궐에서도 연화등 불교사찰에서 제일로 하는 문양을 쓰기도 하였으며 적기적소에 썼을 뿐 비교적 삼가는 편이고 파련화·주화등이 보다 안온감과 호화로운 색감으로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루(城樓)단청은 강력한 표현과 힘찬 채색으로 된 것은보다 신뢰감이 깃든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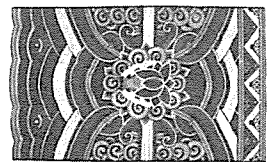
(나) 사찰의 단청

불교사찰의 단청은 고려대에서 융성한 탕으로 조선조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단청술을 구사하여 계승되었으며 중기이후에는 다소 치졸한 것도 보이고 있으나 인간이 종교에 대한 끊임없는 귀의는 이를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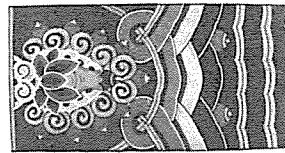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연화를 비롯하여 휘채색 금단청등 다양 다채롭게 펼쳐진다. 그러나 조선조 초의 슬기롭고 창의적인 단청술이 중기이후부터 형식화되고, 허례적인 것이 엿보이게 되었고 심지어는 전대를 모방하는 단청으로 답보하는 것이 되었다. 더우기 후기에 이르러서는 일량도 많아지고, 단청화원의 기술저하, 창의성 결여 등으로 더욱 높은 경지로 이끌어 오르지 못한 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연면히 단청술이 계승되고 또 꾸준히 노력하는 화원도 있어 훌륭한 작품이 남겨지고 있다.



통도사



선운사



부안내소사



전등사

(다) 유교건물의 단청

유교는 한민족의 생활신앙이며 생활철학이 담겨진 것으로 긍정된다면 불교·기독교 기타 종교적 신앙의 밀바탕에는 우리의 생활철학인 유교정신이 깔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속하는 건물로서는 조상숭배의 으뜸인 종묘를 위시하여 선열성현의 묘당, 선조를 모신 가묘 등이 있고 이를 위한 능묘의 제각·제실도 있다. 또 이를 본받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문묘·서원·향교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유교건물의 단청에서도 유교정신으로 구현되어 화려하지 아니하고 찬하지 아니한 고상한 기품과 겸양의 미덕을 찬양하는듯 굿기단청으로 우아하게 꾸미되 부분적으로 모로단청을 넣어 그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도색에 있어서도 찬란하지 아니하나 선열위인의 유덕이 빛나듯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잊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서도 능묘의 제각 또는 이에 따르는 비각등은 그의 위덕을 그리는듯 보다 아름답게 단청하고 있다. 따라서 유교건축이라고 간소하기만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선조·위인성현을 모시는 묘우나 비각을 우리는 보다 미려하게 꾸미고자 하는 마음은 후손으로서 옳은 길이 아닌가 한다. 그 성격에 따라 보다 간결하면서도 맵시있게 꾸미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단청도 그 정신에 따라 때로는 간소하게, 때로는 빛나게 도채하고 있다.

(㉔) 향리 공공건물 및 사가

향리의 공공건물은 정자 등이 있으며 사가에서는 단청하지 아니하나 비각 등은 제대로 단청하고 있다. 이것은

5. 각 건물의 단청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역사적 건물의 단청을 예거하고 그 시대와 단청의 특징등을 비교해야 하지만 간단히 다를 수가 없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중에서 도안으로 예시한다.

6. 결 어

도채재료, 문양등은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들의 연구발표가 있고 또 기법등은 많은 경력을 쌓으신 단청 전문가들의 공이 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다 많은 연구조사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우리가 탐구하는 단청이 과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장래를 도모하는 한국의 색채, 우리들의 색감으로 조화되게 진전하는 계기가 되어져야 한다고 믿는 바이다. <*

◎ 글을 보내주십시오.

“建築士”誌는 회원여러분들의 입과 귀와 눈을 대신하는 다목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릇을 잘 사용하느냐 못사용하느냐 여부는 전혀 회원여러분들의 의중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會誌, 쓸만한 그릇으로 키우는데에는 물론 회원 여러분들의 그럴듯한 作品이 얼마나 많이 실리느냐에 따라 좌우되죠. 하오니 언제든지 아래와 같은 구분으로 글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그릇”이 건강하게 살찌도록 힘써주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하시고싶은 모든 말씀 | <input type="checkbox"/> 시 / 수필 / 풍토 / 취미사진작품 |
| <input type="checkbox"/> 각종 경조사 / 그밖에 동정 / 소식 | <input type="checkbox"/> 각종작품 / 논문 |
| <input type="checkbox"/> 그밖에 뭐든지 좋고요. | |

※ 보내실 때는 가급적 원고용지에 써서 보내주시고요. 필자 사진과 원고 관련사진도 보내주시면 더욱 좋아요. 한문은 꼭 필요한 부분만 쓰시고요. 꼭 원고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보낼 곳은 협회본부편집실로 하시면 됩니다. <※>.

“신체장애자를 위한 특수설계작품 · 논문 모집”

특히 올해는 신체장애자의 해 입니다. 따라서 몸이 불편한 그들을 위해서는 색다른 환경,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서 건축분야에서 身障者를 위한 특수건축을 연구한 회원님들이 여럿 계실줄 믿습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연구하신 論文 종류의 글이거나 혹은 設計作品을 會誌에 發表해서 그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원고길이나 그밖에 제한은 없으며 사진을 보내실 때는 선명한 흑백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